

‘프레임’의 언어학*

-의미적 신어 ‘프레임’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분석-

남길임 · 이수진 · 강범일**

(경북대학교 교수 · 경북대학교 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Abstract>

Kilim Nam, Soojin Lee and Beomil Kang. 2019. The Linguistics of ‘Frame’ in Korean. *Korean Semantics*, 65.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the word ‘frame’ in Korean as a semantic neologism which has been in use for the last 30 years and further examines the collocations and semantic prosody of the word.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consists of online news articles spanning from 1990 to 2018 and compiled into two corpora (Naver News Corpus and Chosun·Dong-A News Corpus), which have been time-sliced in order to perform a time series analysis. Chapter 2 presents the methodology of web scraping corpus and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semantic neology in terms of extraction and identification. Chapter 3 carries out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frame’ from the perspective of corpus linguis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 word ‘frame’ in Korean first appeared in the Naver News Corpus in 2001 and its frequency dramatically increased in 2007, 2012 and 2017, which correspond to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collocates of ‘frame’ within a ± 3 window shows that the term mostly has a negative prosody.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6460).

** 남길임: 제1저자, 이수진: 공동저자, 강범일: 공동저자

핵심어: 의미적 신어(semantic neology), 시간 분할 말뭉치(time sliced corpus), 웹 말뭉치(web corpus), 프레임(frame), 공기어(collocate),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

1. 서론

출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언어 자원의 증가와 언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웹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의 추출과 처리가 말뭉치언어학계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된 지 오래다. 영미권의 경우 1990년대 초에 Times지 말뭉치와 기존 어휘부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신어 후보군을 추출하는 방법론이 논의되었으며(Renouf 1993), 신어의 등장과 사멸 등의 사용 추이 분석(Renouf 2013, Hsieh 2015), 구글 기반 신어 추출 시스템(Kerrenmans et al 2011)까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신어의 식별, 빈도 산출, 예문 및 공기어 자동 분석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2012년 신어조사사업부터 웹 기반 신어 추출기의 활용이 시작되었고, 배제어 규칙 및 고유명사 사전의 보완(2012년~2015년), 패턴 기반 추출(2016년) 등으로 신어 추출기의 성능이 점차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말뭉치 기반 신어 분석의 한계는 말뭉치와 기존 사전을 교차 비교함으로써 형태적 신어만을 추출할 뿐 기존 형태에 새로운 의미나 문법적 특성이 더해진 ‘의미적 신어(semantic neology)’나 ‘문법적 신어(grammatical neology)’에 대한 식별과 기술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이다¹⁾. 대용량의 말뭉치 연구에서 의미 변화의 식별, 자동 탐지 등 의미 분석에

1) Boussidan(2013:4-6)에 의하면, ‘의미적 신어(semantic neology)’라는 용어는 오래 전 Bastuji(1974:6), Guilbert(1975:59)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의하면 전자에서는 신어의 유형을 형태적 신어와 의미적 신어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후자는 의미적 신어를 포함하여 네 가지 신어 유형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Boussidan(2013:4-6)은 신어의 유형을 형태적 신어, 의미적 신어, 문법적 신어(grammatical neology)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의미적 신어는 기존의 형태에 의미적 확장이나 축소, 의미의 가치상승과 가치하락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통칭하며, 문법적 신어는 기존 형태의 문법 범주가 달라진 경우를 지칭한다.

대한 연구는 늘 지난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Kilgariff et al. 2015, Boussidan 2013). 비교적 초기의 연구인 Renouf(2002)에서 공기어의 분포를 통해 의미적 신어를 식별하기 위한 모델이 논의된 이후, 브랜드로서의 애플과 과일로서의 애플의 구분(Newman 2012), 맥락 모형(context model)을 통한 의미적 신어의 식별 및 기술(Boussidan 2013) 등이 시도되어 왔으나, 이들의 공통된 결론은 의미 식별과 탐지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변화와 관련된 말뭉치 연구 방법론의 개발은 언어학 연구의 기반 위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의미적 신어 ‘프레임’의 출현과 정착에 대한 연구로, 지난 29년간(1990~2018)의 웹 대중매체를 연 단위 시간 분할 말뭉치(time-sliced corpus)로 구축, 분석함으로써 의미적 신어의 출현과 사전 기술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기간 ‘프레임’의 출현 빈도와 공기어 변화 양상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사전에 없는 새로운 의미가 최초로 대중매체에 등장하고, 확산되며, 새로운 어휘 문법적 공기 관계를 가지게 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프레임’은 기존 사전에서 두 가지 의미로 기술되었으나, 최근의 대중매체에서는 사전에 없는 새로운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1) ‘프레임’의 사전 기술

프레임 ① [명사]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뼈대. ‘틀1’로 순화. ② [의존명사] <운동> 볼링에서, 한 경기를 열로 나누었을 때의 하나를 세는 단위. 『표준국어대사전』(『고려대사전』, 『우리말샘』 동일)

(2) ‘프레임’ 포털 검색 결과

ㄱ. 2019년 4월 13일자 네이버 뉴스 (관련도 순 정렬 10개)

북미회담의 프레임, 감정적 프레임, 보급형 풀프레임, 프레임만 남은 노트르담 대성당,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프레임, 여야 프레임 싸움, 4730만 화소의 우수한 풀 프레임, 사회가 썩은 프레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 다각형 프레임

ㄴ. 1990년 ‘프레임’ 포함 뉴스 (네이버 뉴스 기사 전체)

프레임 타입으로 설계, 철제 프레임, 메인 프레임, 30 프레임, 25프레임, 초당 16

프레임, 자동차 프레임, 프레임은 티탄이나 알루미늄에, 채색 프레임의 도입

(1)은 ‘프레임’에 대한 기존 사전의 기술을, (2)는 네이버 뉴스 검색창에서 ‘프레임’을 검색한 결과 첫 페이지에 정렬된 10개의 기사에서 ‘프레임’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전후 맥락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1)의 기존 사전 뜻풀이는 두 개로 제시되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어 ‘프레임’은 ‘구체물로서의 프레임’이라 할 수 있으며, (2)는 ‘구체물’로서의 프레임과 추상물 즉 ‘심리적 구조²⁾’로서의 프레임이 혼재되어 있다. (2)의 10개 기사에서 (1)의 뜻풀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단 2개 즉, ‘프레임만 남은 노트르담 대성당’, ‘다각형 프레임’ 정도로 보인다. ‘보급형 풀 프레임’, ‘4730만 화소의 우수한 풀 프레임’의 2개 용례는 카메라 전문용어이고³⁾, 나머지 6개는 ‘세계를 이해하는 심리적 구조나 방식’(Goffman 1974, Gitlin 1980, Lakoff 2004)의 의미로 사용된다. 같은 뉴스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3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있는 (2)의 기사는 (2)의 1990년 기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특정 어휘의 의미 변화 시점이나 정착의 기준을 확정할 수 있을까? 예로 위 ‘프레임’의 경우,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미는 언제부터 출현하였으며 어떤 양상으로 확장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구체물’로서의 프레임이 ‘심리적 구조’로서의 추상적 프레임으로 변화, 확장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전제한다. 첫째, ‘의미적 신어’는 여타의 의미 변화와 달리 사전 기술을 전제로 범주화된다. 따라서 사전 등재를 위해서는 형태적 신어와 같이 특정 시점에 특정 빈도 이상 사용되어 정착된 것이라는

2) 여기서는 Goffman(1974), Gitlin(1980), Lakoff(2004) 등의 frame에 대한 논의, ‘세계를 이해하는 심리적 구조나 방식’을 따라 (2)의 추상적 의미의 프레임을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Lakoff의 ‘frame’에 대한 논의는 나익주(2015, 2019)에서 상세히 소개되었고,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논의된 frame은 아래 위키피디아의 fram(social_sciences)를 참조할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Framing_\(social_sciences\)](https://en.wikipedia.org/wiki/Framing_(social_sciences))

3) 네이버 지식백과 영화사전에는 ‘프레임’이 영화, 카메라 등의 분야에서 8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0429&cid=42617&categoryId=42617>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⁴⁾ 둘째, ‘대중매체’는 의미 변화를 고찰하는 데 가장 분명한 대상이자 기준이 된다. 웹상의 다양한 매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웹상의 뉴스는 개인 블로그나 특정 집단의 게시판보다 넓은 대상을 수용자로 하고 있고, 사회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된다.⁵⁾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웹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위한 웹 크롤링과 말뭉치의 구축 및 분석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구축된 ‘프레임’의 빈도와 분포, 공기 관계를 양적 분석(3.1)과 질적 분석(3.2, 3.3)을 통해 ‘프레임’이 구체물의 ‘틀’에 해당하는 의미로부터 추상물의 단계를 거쳐 부정적인 의미 운율(negative semantic prosody)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사전 기술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프레임’을 사례로 한 의미적 신어의 식별과 기술이 사전학적 관점에서 가지는 의의와 함께 남은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2. 웹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본 연구에서 활용할 말뭉치는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중매체 언어 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네이버 뉴스 말뭉치’와 보다 정밀한 계량적 분석을 위한 ‘조선·동아 말뭉치’이다. ‘네이버 뉴스 말뭉치(이하 ‘네이버 말뭉치’)’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출현한 ‘프레임’의 용례를 되도록 많이 포괄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활용되며, 조선·동아 말뭉치는 네이버 말뭉치가 가지는 연도별 전체 기사량의 가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된다.⁶⁾ 먼저, 네이

4) 자동 식별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출현 시기와 빈도를 분석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의미’의 출현 시기와 빈도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 변화의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사전 기술의 적용 방안, 접근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언어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에 대해, 사전학자이자 사용자참여형 사전 Wordnik의 설립자인 Erin McKean은 2015년 미디어 포럼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단어는 언론으로부터 나오는데, 대중매체는 우리가 언어 공동체에 등장한 어떤 단어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이다. 언론인들은 어떤 단어를 그(그 단어)의 생산자인 어머니 아빠로부터 세상에 등장하게 하는 산파 같은 존재이다.”

버 말뚝치의 구축은 한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네이버’에서 ‘인링크 (in-link)’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네이버 뉴스’의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사문을 대상으로 수집된다.⁷⁾ 즉, 아래 <그림1>과 같이 어휘 ‘프레임’이 포함 된 뉴스 기사문 전체를 텍스트로 수집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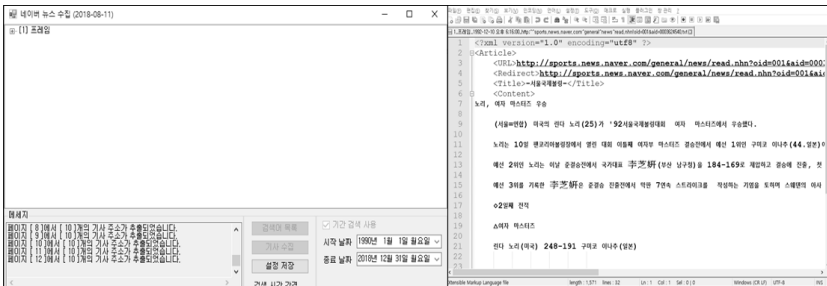
<그림 1> 네이버 뉴스 ‘프레임’ 검색 예시와 인링크·아웃링크 기사의 구분

본 연구에서 인링크 방식의 뉴스 기사만을 수집 대상으로 한 이유는 남길임·

- 연구 대상 기간이 되는 약 29년간(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체 기사량은 연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즉, 웹의 영향력이 커진 2000년을 기점으로 웹상의 정보량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대표적 사례로 네이버 뉴스에서 검색되는 1990년의 기사량과 2017년의 기사량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포털 검색에서 ‘프레임’을 비롯한 특정 어휘의 텍스트 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검색 결과의 절대 빈도가 아닌 ‘1만 기사당 빈도’와 같은 기사 건수 대비 빈도나 전체 텍스트 어절 당 빈도 등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조선·동아 말뚝치’는 이러한 웹상의 기사량 가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구축되고 활용되었다.
- 2019년 현재, ‘네이버’에서는 이용자가 검색한 뉴스 기사를 인링크, 아웃링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인링크 방식의 기사는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뉴스 기사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아웃링크 방식의 기사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기사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웃링크로만 기사문 확인이 가능한 기사는 본 연구의 말뚝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준·이수진(2017)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즉 이에 의하면, 네이버에서 인 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뉴스 기사문의 경우, 기사 출처가 다른 언론사라 하더라도 공통된 네이버 웹 페이지의 메타 구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말뭉치 수집 도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메타 구조의 경우의 수를 단순화할 수 있어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기사문은 1990년의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검색 범위를 199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확정하여 말뭉치 수집을 진행한다. 또한, 뉴스 기사문을 검색한 결과를 말뭉치로 수집하기 전 단계에서 검색할 대상 어휘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상 어휘의 대표형을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변이형을 추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어휘 ‘프레임’을 수집하기 위해 한글로 표기된 ‘프레임(검색 결과 326,309건)’과 ‘프레임(검색 결과 263건)’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하였으며, 영문자로 표기된 형태는 영문 기사나 한글 표기형 뒤에 덧붙이는 괄호 안 원어 병기 형태로 주로 나타나므로 수집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2> 말뭉치 수집 도구의 구동 화면 및 수집 결과 예시

말뭉치는 검색된 개별 뉴스 기사문의 웹페이지에서 표제, 본문, 기사 작성 일시, 출처 정보만을 추출하여 각각 하나의 텍스트 파일 형태로 수집·저장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네이버 말뭉치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프레임’을 포함한 뉴스 기사문 약 11만 건으로 구성되며, 대략 180여 개 정도의 대중 매체 출처를 포함한다.

한편 조선·동아 말뭉치의 경우, 각주 6)의 연도별 기사량의 차이, 중복 기사나 발행된 기사에 대한 수정 기사 등과 같은 모집단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 등 시계열 분석 수치의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활용되는데, 이 말뭉치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들로 구성된다. 이 두 일간지는 한국ABC협회가 2019년에 발표한 ‘2018년도 일간신문 유료 부수’ 통계에서 166개 일간지 중 유료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으로, 이 말뭉치는 결국 구독층이 가장 두터운 2종의 신문사에서 발행된 지면 게재 기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표 1> 네이버 말뭉치와 조선·동아 말뭉치의 구성 정보

말뭉치 유형	전체 기사 수	어절 수	‘프레임’ 기사 수	‘프레임’ 빈도
네이버	-	-	113,445	176,381
조선·동아	2,364,413	392,593,468	2,336	3,479

이들 두 말뭉치를 활용한 분석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말뭉치를 대상으로 ‘프레임’이 지난 29년간(1990-2018) 사용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프레임’의 빈도 증가가 새로운 의미로의 확장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프레임의 의미 변화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조선·동아 말뭉치의 29년간 기사 5,000여 건 용례에 나타난 ‘프레임’의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의미 빈도를 분석한다.

의미 빈도는 기존 사전의 구체적, 물리적 실체로서의 ‘프레임’과 확장된 의미로서의 ‘심리적 구조’로서의 추상적 ‘프레임’을 구분하는 선에서 수행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출현과 정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프레임’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공기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레임’의 의미 변화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01년 이후 등장해서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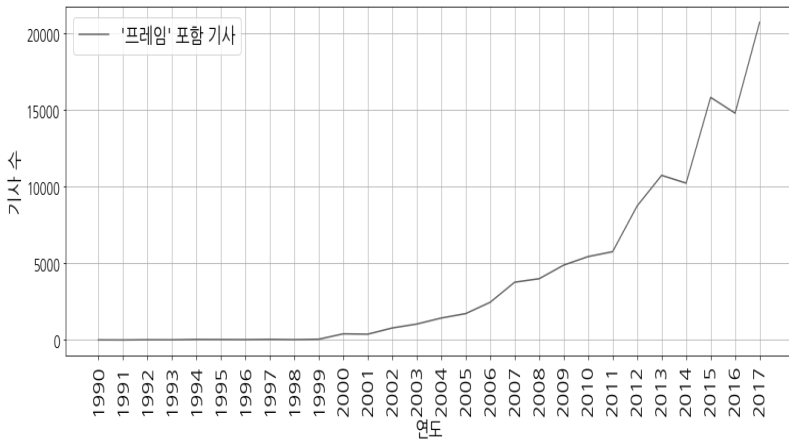
8) ‘프레임’의 정치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보수와 진보 대표 매체를 고루 수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실제 크롤링의 문제와 용례 분석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도하지 못하였다. 향후 담화 차원의 분석에서는 ‘한겨레, 경향’ 등을 수집하여 수식어를 비롯한 공기 관계 분석을 시도할 계획이다.

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고빈도 공기어의 의미 부류와 의미 운율을 분석함으로써 대중매체에서 사용된 ‘프레임’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3. 1990~2018의 ‘프레임’의 사용 양상 분석

3.1 ‘프레임’의 빈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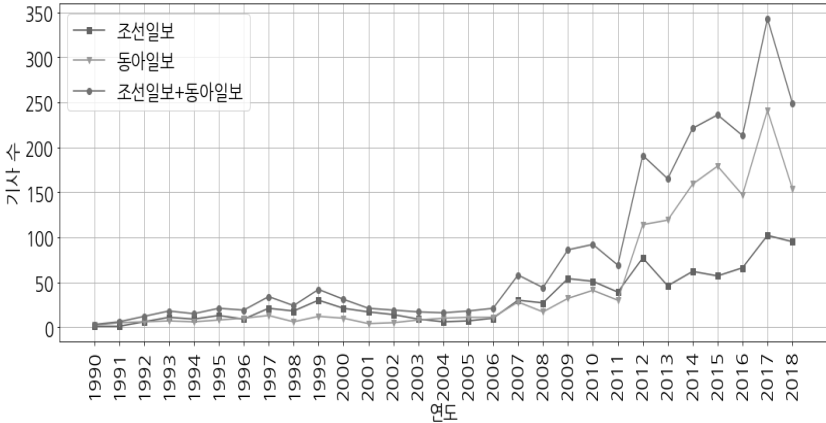
‘네이버 뉴스’에 등장한 기사 중, ‘프레임’을 포함한 기사는 지난 29년간(199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3,445건으로 연도별 추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프레임’ 출현 기사 추이 네이버 말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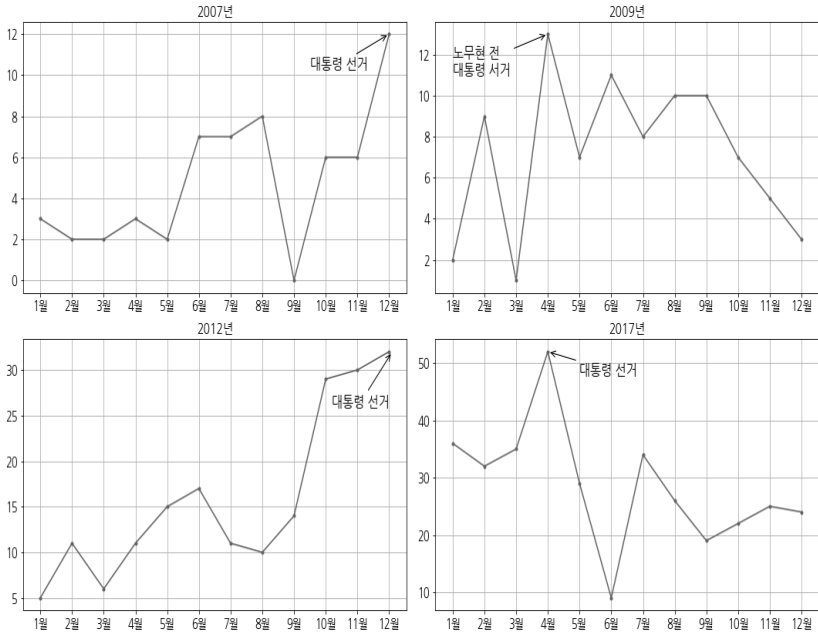
<그림 3>을 보면, 1990년 9회, 1991년 4회 등 1999년까지 두 자리 수를 넘지 않는 기사 건수가 2000년 이후와 몇 번의 가파른 상승을 보여 2017년에는 최초 20,000회 이상이 등장한다. 그런데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30년 간 웹의 정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프레임’의 기사 건수만으로는 ‘프레임’의 새로운 의미의 생성과 세력 확장을 증명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따

라서 전체 기사량 대비 ‘프레임’의 기사 건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신문 기사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조선·동아 말뚱치를 통해 1만 기사당 ‘프레임’의 기사 건수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도별 1만 건당 ‘프레임’ 상대 출현 기사 수 조선·동아 말뚱치

<그림4>는 <그림3>과 유사한 우상향 곡선을 보임과 동시에 더 분명하고 세부적인 추이 정보를 담고 있다. 즉, 두 신문사 모두 1만 기사 당 상대 빈도에서 뚜렷한 봉우리를 보이는 지점은 2007년, 2009년, 2012년, 2017년으로 나타나며 이 지점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선거 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나머지 2009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적어도 대중매체에 나타난 ‘프레임’의 경우에 한해서는, 형태의 빈도가 ‘프레임’의 새로운 의미의 확장 및 정착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래 해당 연도의 월별 빈도 분석은 이를 좀 더 분명히 보여준다.



<그림 5> 주요 4개 연도의 월별 ‘프레임’ 상대 출현 기사 수 조선·동아 말뭉치

그렇다면, ‘프레임’의 새로운 의미,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은 언제 최초로 출현하여 어떻게 정착해 왔을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은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Frame Analysis』(1974)에서 유래된 것으로 논의되며, 이후 Gitlin(1980), Lakoff(2004) 등으로 이어져 ‘세계를 이해하는 심리적 구조나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어휘가 실제로 한국어에서 정착하는 과정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 기존 사전의 ‘침대 프레임, 철재 프레임’ 등 구체물로서의 프레임을 넘어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의 시작과 정착 시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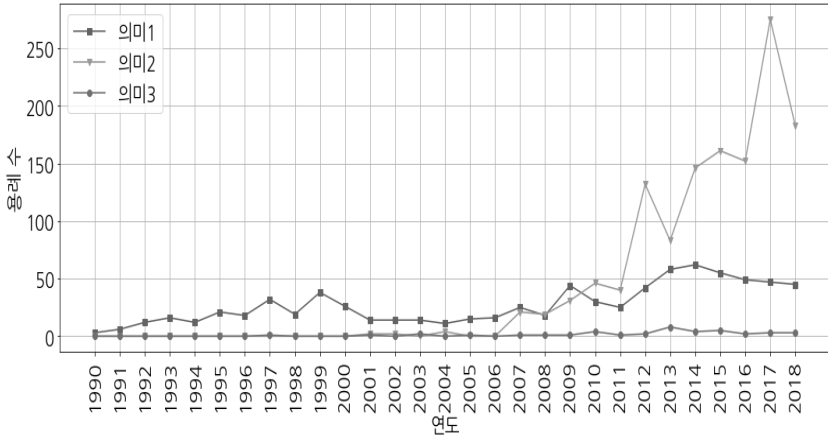
우선, 네이버 말뭉치에서 나타난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에 대한 최초의 사례는 2001년이며 이후 2002년에도 언론에 더러 등장하지만 그리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ㄱ. 군사 보복주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뉴스의 출처나 정보원은 주로 CNN과 미국 관리 등이어서 미국의 관점은 여과없이 전달됐으며...(2001. 11. 09, 연합뉴스)
- ㄴ. 민주당을 지지하면 'DJ의 양자'로, 민주당을 비판하면 '말 바꾸기'로, 침묵하면 '말 못하는 쪼다'로 규정하고 몰아붙인 <조선일보> 프레임에 우리 사회가 갇혀 버렸다는 게...(2002. 7. 28, 오마이뉴스)

(3)와 같은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은 2001년 총 5회가 사용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한 기사에서 출현한 것으로, 해당 연도 전체 프레임 기사 447개를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한 출현이며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의 정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⁹⁾

'프레임'의 의미 확산 양상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조선·동아 말뭉치와 더불어 중앙일보 전체를 합한,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용례 5,484개 전체를 대상으로 의미를 분석해 보면,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이 가시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2007년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5,484의 용례에서 고유명사류 258개를 제외한 5,226개에 대한 의미 부류별 분석 결과로, 기존 사전의 구체물로서의 프레임을 '의미1'로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을 '의미2'로, 그 외의 용례는 '의미3'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¹⁰⁾

- 9) (3)과 동일한 기사에서는 '회의주의 프레임', '아프가니스칸에 대한 뉴스 프레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02년 역시 단 1회가 사용되었다. 한편 2001년에서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추상적인 프레임으로 논의될 만한 사례도 있다. 아래 두 가지 예는 기존 사전과 다르게 '구조, 체제' 등으로 좀더 직접적으로 번역할 만한 사례로, (3)의 예와도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 의미 분석에서는 이를 '의미2'로 태깅하였으나 별도의 표시를 통해 재분류해 두었다.
 - ㄱ. 이 도전은 경제와 노동시장은 물론 ... 중장기 국가 운영 **프레임**을 재정비하게 만들 것이다.(2001. 09. 28, 정치, 조선일보)
 - ㄴ. 언제쯤 일본 경제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지, 이를 타임 **프레임** 속에서 예측하기는 힘들다.(2001. 4. 26, 경제, 조선일보)
- 10) 적어도 5,000개 이상의 의미 분석을 위해, 조선·동아만의 용례와 더불어 웹 자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앙일보를 합한 5,484개의 용례를 확보하였다. 용례의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1차 분석과 2차 검수를 수행하였다. 분석의 기본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고유명사: 의미0 (예: 삼성전자의 “더프레임”, 프레임워크, 제임스 프레임 등 고유명사나 영어 복합어)
 - 기존 사전의 의미: 의미1 (예: 침대 프레임, 메인 프레임, 철재 프레임)
 - 추상물로서의 의미: 의미2 (예: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중북 프레임, 갑을 프레임)
 - 기타 의미: 의미3 (예: 카메라 프레임, 초당 30개 프레임이 돌아가는 영상)



<그림 6> 의미에 따른 연도별 용례의 수

<그림 6>은 2001년 처음으로 등장한 ‘추상물로서의 프레임’이 점차로 세력을 얻어 2007년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2010년에는 기존 의미인 ‘구체물로서의 프레임’보다 더 많은 빈도를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의미2의 빈도 추이가 2007년, 2012년, 2017년에 높은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림 4>의 기사 빈도 추이와 매우 유사하다. 2018년 마지막 시점의 ‘의미2’는 ‘의미1’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쓰이며, 직전 해인 2017년에는 4배 이상 많이 사용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양적 분석을 통해 대략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레임’ 기사 빈도는 2000년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07, 2009, 2012, 2017년에 급속히 높아지는 전기를 맞게 되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 시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점과 일치한다. 이는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이 다분히 정치적인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둘째, 2001년 처음 사용된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조선·동아·중앙일보 전체 기사의 의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5,400여 개의 용례 분석에서 의미2는 발생 당시부터 한동안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으나, 2007년에

이때 의미3의 경우는 연극이나 영상 분야 전문어 분야의 용례가 다수인데, 이들 역시 향후 사전 기술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로소 기존의 의미1과 유사한 빈도로 사용되다가 2010년에는 의미1을 훌쩍 넘어서기 시작한다. 셋째, 의미2의 추이 역시 대통령 선거 등의 시점과 일치하는 빈도 증가를 보이며, 2017년 이후 현 시점에는 적어도 3배 이상 많은 쓰임을 보인다.

3.2 ‘프레임’의 공기어 추이와 의미 변화

네이버 말뭉치를 통해 확인된 2001년도 최초로 나타난 의미2의 용례는 ‘신어’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의미적 신어(semantic neologism)의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그러나 제한된 대중매체라는 원천 대상 자료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 특정 의미의 한두 번의 출현을 모국어화자의 의미 확장에 대한 보편적인 인지의 결과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레임≒2001년 최초 출현 의미적 신어’와 같은 공식은 다소 부담스러운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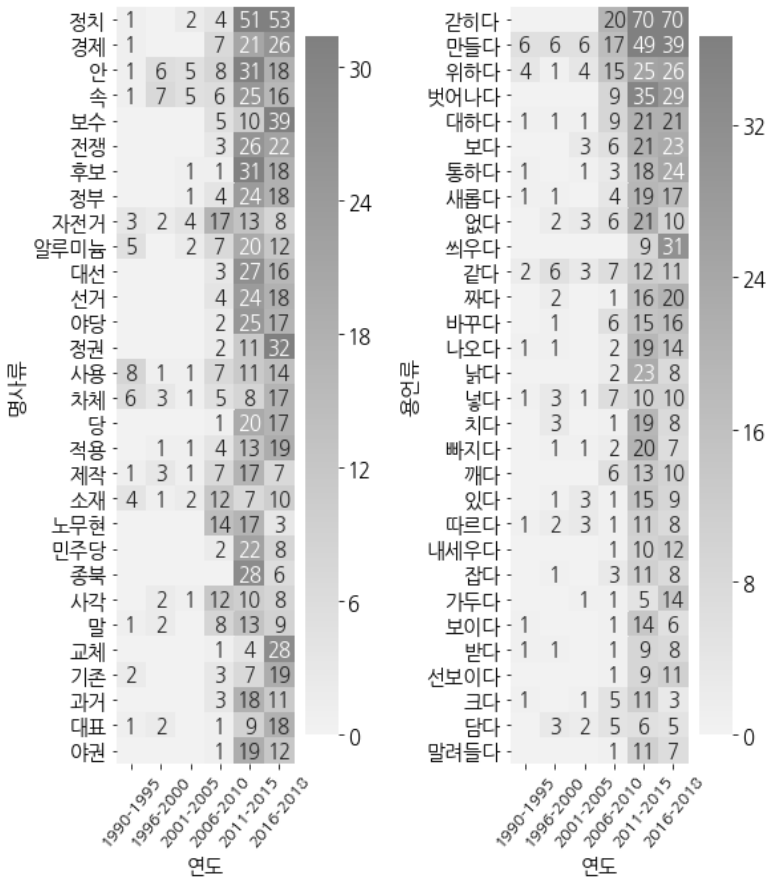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의미적 신어의 최초 출현과 정착의 시점은 다른 것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의미 변화의 정착 시점을 탐지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¹¹⁾ 또 의미적 신어, 의미 분별 등의 연구(Renouf 2003, Newman 2012)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공기어 분석을 통해 의미 변화의 분석에서 공기어 분석이 가지는 의의와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기어 분석은 특정 단어와 맥락에서 인접하여 나타나는 단어들(collocates)로 정의한

11)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의 의미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상대 빈도와 공기어(collocates)를 분석하였다. 상대 빈도는 과거에 비해 사용량이 달라진 단어들은 기존의 의미가 변화했거나 대안적인 의미를 획득한 것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용된 척도이고, 공기어는 유사한 문포를 가진 어휘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분포적 가정(distributional hypothesis)을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다. 그러나 의미 변화의 시작점이나 변화된 의미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시점을 보다 엄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 어휘 또는 공기어의 단순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것 이상의 보다 과학적인 통계 분석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의미 변화(semantic change) 분야의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한 단어 임베딩을 통한 분포적 접근(Hamilton, Leskovec, & Jurafsky 2016)이나, 말뭉치 언어학 분야에서 역사 말뭉치 탐색을 위해 최근에 제안된 사용량 변동 분석(Usage Fluctuation Analysis; Brezina 2018) 등의 방법론이 참고될 만하다. 다만 이러한 기법들은 수백 년에 걸친 텍스트 자료의 분석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기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의미 변화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얻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복수의 신어를 대상으로 한 후고를 계획 중에 있다.

Firth(1957:6)의 분포적 접근(distributional approach)을 따라, 공기어의 변화가 의미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진제하는 것이다. 먼저,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프레임’의 공기어를 분석하기 위해 네이버 말뭉치 전체를 형태 분석한 다음, 좌우 ± 3 어절 내의 공기어를 분석하였는데,¹²⁾ 이를 주요 품사 부류인 명사류와 용언류로 구분하여 고빈도 30위까지를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7>, <그림 8>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간을 대략적으로 총 6개의 급간으로 구분하였고, 각 구간별로 공기어의 빈도를 합산하였다. 시간의 급간은 [1구간](1990-1995), [2구간](1996-2000), [3구간](2001-2005) 등의 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구간에서 새로이 등장한 공기어의 수와 양의 증가를 통해 ‘프레임’의 의미 변화 양상과 현재 ‘프레임’이 가지는 함축적 의미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12) 공기어의 범위는 ‘프레임’이 출현한 동일 문단 내, 동일 문장 내와 같은 기준, ± 5 어절과 같은 일정한 길이로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적어도 ‘프레임’의 의미 변화 분석에 한해서는 ± 3 어절의 공기어 범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통계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절대빈도 분석만으로 공기어를 판별하였는데, 문법 형태소 등 불용어를 배제한 분석의 결과가 명료하여 통계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7> ‘프레임’의 공기어 양상 명사 <그림 8> ‘프레임’의 공기어 양상 용어

우선, 명사류의 경우, “정치, 경제, 안, 속, 보수, 전쟁…”의 빈도순으로 ‘프레임’과 공기하는데, 1990년부터인 [1구간]부터 존재했던 공기어와 [3구간], [4구간] 이후에 최초로 출현하여 급속한 빈도 상승을 보이는 공기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3구간]은 2001-2005 구간으로 (3)의 ‘추상물로서의 프레임’이 최초로 출현한 시점이며, [4구간]은 2006-2010년 사이로 2007년 선거 이후 ‘프레임’의 빈도가 급상승한 시점을 포함한다.

- (4) ㄱ. 2001-2005 구간 최초 출현: 후보, 정부
- 나. 2006-2010 구간 최초 출현: 보수, 전쟁, 대선, 선거, 야당, 정권, 노무현, 민주당, 교체, 과거, 야권
- 다. 2011-2015 구간 최초 출현: 중북
- 르. 2016 이후 구간 최초 출현: 적폐

다음으로 용언류 역시, “간하다, 만들다, 위하다, 벗어나다, 대하다, 보다…”의 빈도순으로 ‘프레임’과 공기하며, 각 구간별 최초 출현 공기어는 다음과 같다.¹³⁾

- (5) ㄱ. 2001-2005 구간 최초 출현: 보다
- 나. 2006-2010 구간 최초 출현: 간하다, 벗어나다, 낚다, 깨다, 내세우다, 선보이다, 말려들다, 걸리다
- 다. 2011-2015 구간 최초 출현: 씌우다
- 르. 2016 이후 구간 최초 출현: 걸려들다

위 (4), (5)의 공기어 추이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각 (ㄱ)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2가 최초로 출현하는 2001년 이후 ‘후보, 정부’, ‘보다’와 같은 새로운 공기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후보, 정부’는 명시적인 정치적 공기어이며, ‘보다’는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2의 ‘프레임’이 주관적 시각을 전제로 하는 ‘관점, 가치관, 세계관’(Goffman 1974, Gitlin 1980, Lakoff 2004) 등의 의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서 그 출현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공기 관계는 대부분 ‘프레임{으로/에서} 보-’의 구성으로 쓰인다.

- (6) ㄱ. 후보 단일화 프레임, 무자격 후보 프레임, 문 후보의 프레임…
- 나. 정부 정책의 프레임,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라는 프레임, 정부의 말 바꾸기 프레임…

13) 용언류의 경우 본래 고빈도로 등장하는 ‘하다, 되다, 이다, 있다, 없다’의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빈도순으로 제시하였다.

(7) ‘프레임’ + ‘보다’

A에게서 그를 싸고 있는 좌파
진보의
실리콘밸리 시각에서 안 의원의
IT 혁신
그는 북한 인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활동을 하며 그를
노동운동가
이번에도 일각에서 ‘산업정책은
구(舊)시대적 답답한
이 논쟁엔 ‘프레임 싸움’의 성격이
있다. ‘지구 구하기(환경)
이번 논란만큼은 한·일 간
대결이라는
다만 이 갈등을 단순히 ‘남혐 대
여혐’의
이번 사건을 ‘여혐(여성혐오)남자
대 여자’
이들은 나치 병사들이 전쟁을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결과·목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정·성장의
군 가산점 제도와 달리, 이번
조치를 차별
방송산업을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진흥
어쨌든 당시 정국을 ‘친일 대
반일’의
『대중의 직관』
그는 ‘박근혜 대 안철수’의 대결을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란
세상을 다양한
과거 ‘미군 남성-한국 여성’을 매춘

프레임을

프레임을

프레임으로
만

프레임’으
로

프레임’으
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프레임에서

봤다.
보면 불편한 진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보던 보수층의 인식에 변화
를 줬다.
보는 강한 비판이 터져 나왔
고,
불 거나, ‘경쟁력 키우기(경
제) 프레임’으로 불 거나 하
는 것이다.
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
였다.
보는 일부 의견을 문 전 대표
가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
봤다고 해석한다. 공간과 역
할,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집
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봐야 한다.
볼 여지는 적다.
봤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
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보는 것은 현실에는 맞지 않
는다.
보자면, 경기가 좋았다면 이
런 인기는 불가능했을 것이
다.”
봤다.
보면 다른 이면이 보여요.
봐온 사회적 시각이 여전한
탓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 보상과 처벌을
통해 학습한다는 행동심리학적

프레임에서

보면 A와 B그룹 간에 큰 차
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위 예는 ‘프레임’이 ‘{[명사/명사구]/~의/-는; 프레임}과 같은 피수식 구성으로 ‘보다’와 함께 쓰여, 수식어가 가지는 특정한 관점이나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거나 판단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4), (5)의 공기어 추이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명사와 용언 공기어 모두 [4 구간](2006-2010)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기어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공기어 유형이 급속히 확장하는 이 시점은 2007년 선거와 의미2가 기존 의미1을 넘어서는 시점인 2010년을 포함하는 구간이다. 명사류로 ‘보수, 야권, 야당’, ‘대선, 선거, 교체’와 같은 이념 및 정당, 대선 관련 어휘가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시점의 급격한 빈도 증가를 잘 설명해 준다. 특히 [4구간]에 새로이 출현한 용언류 8개 유형은 ‘프레임’이 실제 대중 매체에서 어떤 의도와 의사소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아래 (8)는 8개 유형의 용언류 공기어를 의미에 따라 두 가지 부류와 기타로 구분한 것이다.

- (8) ㄱ. ‘감히다’류 : 프레임에 {감히다/말려들다/걸리다}
 ㄴ. ‘벗어나다’류: 프레임에서 벗어나다, 프레임을 깨다
 ㄷ. 기타: 내세우다, 선보이다, 낡다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의미하는 새로운 의미의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은 가치 중립적이기보다, 누군가가 ‘내세우는’, ‘낡은’ 프레임으로서(8ㄷ), 자칫 잘못하면 ‘감히거나 말려들기 쉬운’ 대상이고(8ㄱ), 따라서 ‘벗어나거나 깨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8ㄴ). 이런 맥락에서 프레임의 다수 용례는 화자나 필자 자신이 만든 것이기보다는 누군가 타인이 ‘내세우거나 선보이는’ 대상이지만 주로 ‘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3.3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¹⁴⁾

14) 지면의 제한으로 더 상세히 논의하지 못했지만, [1구간]에 이미 등장해 있는 ‘정치’와 ‘경제’ 공기어, ‘안, 속’ 등 고빈도 공기어 구성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993년에 1회 출현한 ‘정치, 경제’ 공기어 구성은 ‘관점으로서의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구조로서의 프레임’이 적절하며, 빈번하지 않지만 용례 분석에서 드

3.3 프레임의 현재: 의미적 운율

지금까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프레임’의 빈도와 의미, 공기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관점으로서의 프레임’이 2000년대 초반 처음 도입되어, 2000년대 중후반에 기존 의미를 넘어서 지배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사전이 새로운 형태가 아닌 새로운 의미까지 반영해야 하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단기 통시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전학적 논의에 큰 함의를 준다. 물론 어휘 ‘프레임’의 현실을 반영한 풍부한 사전 기술을 위해서는, 프레임의 의미를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8)의 용언류 공기어와 관련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중매체에 나타난 ‘관점으로서의 프레임’은 가치 중립적인 ‘관점’이나 ‘세계관’이라기보다, 다분히 평가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기어의 의미 부류 분석을 통해 파악되는 특정 단어의 평가적 의미는 말뭉치언어학에서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이라는 용어로 논의되어 왔다. 의미적 운율은 ‘특정 형태와 함께 나타나는 연어에 의해 채워지게 된 의미의 일정한 기운(aura)’(Louw 1993:157)에서 시작되어, Sinclair(1996), Hunston & Francis(2000), Stubbs(2009)¹⁵⁾의 주요 연구와 최근의 논의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어의 분석을 통해 특정 단어의 의미나 태도, 감정적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담화·화용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의미적 운율은 말뭉치언어학의 핵심 개념인 ‘연어’, ‘담화’와 더불어 중요한 개념이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적 운율의 스펙트럼 상에서, ‘프레임’은 대부분 부정적 운율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여기서는, 위 3.2 [±3 형태] 공기어 분석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정치적인 담화 의미를 보일 것으로 확실시되는

물게 발견되었다.

(9) 20세기를 지탱했던 정치·경제·사회의 기본 프레임이 무너지고 21세기의 새로운 구조가 유럽대륙에서 눈앞에 등장한다. (조선일보 1993.1.1.)

15) 말뭉치언어학에서 논의되어 온 의미적 운율의 정의와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남길임(2012, 2014)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정치’(공기 빈도 1위)의 용례와 어휘 의미 자체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속’(4위)의 용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는 더 명확한 사례 제시를 위해, 두 용례 모두 ‘정치 프레임’, ‘프레임 속’과 같이 좌우 인접한 전형적인 어절을 제시한 것이다.

(10) 공기어 ‘정치’의 언어¹⁶⁾

① 어찌면 여야 지도부는 문제 해결보다는 **적대적 공생, 반정치**

프레임

확산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② 선거에서 이기려다 보니 정치공학이나 **정치**

프레임처럼

유권자들의 심리를 유리하게 끌고 오려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점점 더 정치인들의 의도에 따라 끌려 다니는 존재일까.

③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배를 탔던 문 전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일 경우 **구태 정치**

프레임에

스스로 **간히는** 모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④ 보고서는 “개헌을 매개로 반기문 총장 등의 이른바 ‘제3 지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패배로 이끌 수 있다”며 “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논의 불가를

프레임에

간힐 수 있다”고 했다.

⑤ 고수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 한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6·4 지방선거도 예전처럼 정권심판 대 정권수호의 국가 정치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었다.

⑥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과거 지향적인 정치**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⑦ 새누리당은 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새 정치**

프레임’에

맞서 ‘여성 대통령이 곧 쇠신’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파했다.

16) 공기어가 또 다른 공기어를 가질 때 이를 ‘제2공기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여기서는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⑧ 안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 낡은 방식과 행태”라며 또
새정치-구대정치

프레임을

빼들었다. 그러는 동안 거대한
정치혁신안은 모두 ‘새정
치공동선언’이라는 블랙홀
에 들어간 뒤 온데간데없어
졌다.

⑨ 불만을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여권을 포위하는
전략도 된다. 소수와 다수로 편을
갈라, **소수를 공격하는 정치**

프레임인

것이다.

⑩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소모적
싸움을 벌이면 꼼짝없이
현실정치

프레임에

간한다.

⑪ 유승희 의원은 “정당정치의 핵심
중 하나가 공천권인데 제살을
까다가 제 팔을 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안 의원이 강조하는)
새 정치의

프레임이

정당정치를 혐오하고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⑫ 그는 “지금 중요한 건 박
후보처럼 **진영 논리에 빠진**
‘낡은 정치

프레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프레임’에 대한 위 용례는 주로 ‘적대적 공생, 반정치 프레임(①)/구
태 정치(③)/기득권 정치(④)···/낡은 정치 프레임(⑫)’과 같이 정치와 관련한 부
정적인 수식어와 함께 쓰여, 지양해야 할 부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
분이며, ‘간하다, 말리다, 교체하다’와 같이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기술된다.
분석 대상 말뭉치가 대중매체임을 고려할 때, 이들은 주로 기자의 입장에서
또는 인용된 글의 화자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관점이나 가치관으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①,②).

단, 여기서 ② ‘정치 프레임’, ⑪ ‘새 정치의 프레임’과 같이 다소 중립적인
사례도 있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는 있다. ②는 ‘정치 프레임’의 존재와 영향력
을 설명하고 있는 맥락에서, ⑪은 안철수 의원이 만든 ‘새 정치의 프레임’의
문제를 설명하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전자는 적어도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며, 후자 역시 부정적인 운율에 대한 반례라고 보기는 어렵다.¹⁷⁾

다음으로 주로 ‘프레임 속’으로 사용되는 공기어 ‘속’의 용례는 훨씬 더 분명

하고 강한 부정적 운율을 나타낸다.

(11) 공기어 ‘속’의 언어

강남역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불법 몰카, 미투 폭로 등의 사회문제가 모두 ‘**여혐**’ ‘**남혐**’의

프레임
속

으로 들어가 소모적인 성 대결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② 하지만 상담을 통해 만나보면 이유는 명백하다. **나이**, **뒤처짐**이라는

프레임
속

에서 쫓기듯이 ‘어디라도 가야 해서 고르는’ 선택은 오발탄을 낳는다.

③ 일부 문제적 교사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대부분 교사의 진정성마저 의심하는 **불신의**

프레임
속

에서 교사들은 존경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학원 선생님보다 못 가르치고 인격적 수준마저 낮다면 대체 그 소용이 어디 있던 말인가.

④ 하지만 통일부가 간과하는 게 있다. 여전히 ‘**김일성 가면**’이란

프레임
속

에서 해명했다는 사실이다. 이 안에선 김일성과 닭은꼴이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분개할 수가 적지 않을 터다.

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고,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아예 **적폐청산**

프레임
속

으로 뛰어들었다. 이른바 ‘신(新)적폐청산’ 전략이다. 국회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온통 적폐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⑥ 인동 장씨 역모 사건은 이후 **영남 남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
속

에서 서슬됐고, 이 집안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남인 전체의 신원(伸冤)이 걸린 문제로 확대됐다. 정조의 독살설 역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⑦ 재벌 개혁만 하면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는

프레임
속

에서 나온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지금의 경제력 집중은 글로벌화와 IT(정보기술) 혁신

17) 실제 더 많은 용례를 검색해 보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운율을 보이는 사례가 분명 발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이 의미적 운율 자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발견은 될 수 없다. 언어의 본질 중 ‘관습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말뭉치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적 운율 역시 화자의 언어적 경험에 따라 다소 달리 인지될 수는 부분이며 화자의 언어적 경험과 인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발화는 개인에 따라 다른 현상이다. 따라서 어떤 현상도 100%의 일치는 가능하지 않다.

주장이 이런

- 국민 대부분은 고정된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지금의 국민은 정치권의 정략적 편의성 때문에 그들이 만든 **보수-진보**
- ⑧ 지금 우리 정치권은 국민을 보수와 진보라는 강조했다. 문 진 대표의 이런 역사인식은 실망스럽다. 서로를 경원시키는 **편 가르기 이분법적**
- ⑨ 한국은 지금까지 **일제강점, 전쟁, 분단의**
- ⑩ 평화적 통일일수록 강한 군사적 위엄과 효율적 뒷받침이 더욱 중요한 법이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 **'국방 개혁 2020'**의 자성의 물결에서 사회개혁의 단초를 발견하려던 시민들은 결국 **민생과 색깔**
- ⑪
- ⑫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탓이 더 크다. 에 **간헐** 포로일 뿐이다. 그런 프레임이 우리 정치권을 계속 지배하게 되면, 행동하지 않는 조용한 국민 대부분의 생각은 무시되고,

에 **가두어** 놓고서 정치의 판을 짜려 한다.

에 **간혀** 있었다. 사회는 양 극단으로 나뉘어 **'중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에서 **병력**이나 **감축**하고 있는 국방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으로 **빨려 들어** 자유롭지만 무력한 국민이 되었다.

‘속’은 ‘정치’와 달리 ‘남혐 여혐의 프레임’이나 ‘나이, 뒤처짐의 프레임’ 등으로 적용의 다양한 범위를 보여주는데, 공통점은 모두 해당 프레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프레임 속’에 ‘간헐거나, 가두어 놓거나, 뛰어들거나 빨려든’ 결과는 각 용례의 밑줄 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소모적인 성 대결로 확산되거나’(①), ‘선택이 오발탄을 낳거나’(②), 더 나아가 프레임 속에 간헐 포로가 되기도 한다.(⑧)

지금까지 논의된, ‘프레임’의 공기어와 의미적 운용의 양상은 현재 대중매체에 나타난 ‘프레임’의 전형적인 사용 양상이다. ‘프레임’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칫하면 간헐거나 빠져들기 쉬운 대상으로 기술된다. 이러한 ‘프레임’의 출현 양상에 대한 분석은 웹 언어의 빠른 변화 속도를 사전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일반적인 사전이 가지고 있는 표제어 기술의 보수적 정책이 언어의 변화 속도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등 새로운 의미의 출현과 기술에 있어서 사전학적 쟁점을 보여준다.

특히 새로운 형태와 달리 새로운 의미의 출현과 확산이란 명확한 시기와 의미 구획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적 신어의 식별과 기술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내재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의미적 신어 연구와 사전 기술의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9년간의 웹 대중매체 말뭉치의 분석을 통해, 의미적 신어 ‘프레임’의 빈도 추이, 공기어와 의미적 운용의 분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논의가 향후 사전의 보완 시점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논의하였다. 아래에서는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ㄱ) ‘심리적 구조’로서의 ‘프레임’은 한국어 대중매체에서 2001년도에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확산을 보여 왔다는 것, ㄴ) ‘프레임’의 공기어 분석에서 공기어가 확산되는 시점은 의미2의 빈도가 급증하는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 ㄷ) 고빈도 명사류와 용언류의 공기어 분석은 ‘프레임’이 가지는 부정적 운용과 이를 사용하는 화자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프레임’의 경우와 같이 사전의 의미 기술에서의 공백은 웹의 등장과 함께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언어 변화의 속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 사전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남길임(2019)에서도 제안했듯이 잘 정제된 균형 말뭉치에서 얻은 빈도를 활용한 표제어 추출 및 기술만을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언어 사실을 사전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 대신에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는 웹 자원에 기반한 동적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언어 변화에 대한 기술이 사전에서도 기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어 변화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에서는 한 세기 또는 수 세기에 걸친 변화를 살피는 장기 통시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보편화된 지금, 매우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언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통시적 언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단기 통시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언어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이러한

연구 관점의 전환은 Boussidan(2013)에서처럼 ‘패러다임 전환’이라고까지 일컬을 만하다. 소수의 단어나 형태에 한정된 언어 변화의 연구는 기존의 통시적 연구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나, 말뭉치언어학과 결합한 단기 통시적 연구에서는 하나 혹은 복수 어휘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급격한 빈도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 해당 언어에서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멀어져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시점까지 시간에 따른 어휘 발전의 전 과정을 자동적으로 확인·추적해나가는 방법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Baker 2011, Boussidan 2013, Renouf 2013).

현재 새로운 형태 출현의 식별과 변화 과정의 탐지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새로운 의미의 출현이나 기존 어휘의 의미 변화를 자동적으로 식별·탐지하는 기술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형태적 신어의 자동 추출 기술은 실제 신어 조사 사업에서 활용되는 수준에 도달했으나 의미적 신어의 자동 탐지 및 분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의미적 신어의 자동적 식별이 시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미와는 확연히 다른 의미라고 인지될 만큼 새로운 의미란 무엇인가? 기존 의미와 새로운 의미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의미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어떤 요인을 통해 식별할 것인가?’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뭉치 내에서 의미적 신어 ‘프레임’이 출현하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 본 연구의 단기통시적 접근법은 특정 어휘 의미의 출현 및 정착 시점에 대한 자동적 식별 방법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특정 포털(네이버 뉴스)에 남아있는 용례만을 살펴보았으므로, 약 30년간의 대중매체 전체를 균형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진다. 또한 자료 수집의 용이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추가적으로 활용된 말뭉치도 보수적 언론을 대표하는 매체(조중동)만으로 제한되어 진보적 언론 측에서의 ‘프레임’ 사용 양상을 함께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미처 수행하지 못했지만, 향후 보수와 진보 언론을 균형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는 ‘프레임’에 대한 담화 차원의 연구나 ‘~에게 ~라는 딱지를 붙이다’ 등 유사 의미 표현과의 공존·경쟁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보다 더 많은 사용례를 찾을 수 있는 의미적 신어를 분석함으로써 의미 변화 판별의 단계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 과제로 남겨 두고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나익주(2015),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담화와 인지* 22(3), 담화인지언어학회, 125-131
- 나익주(2019), “도덕성 은유와 프레임 전쟁: 적폐 청산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6(2), 담화인지언어학회, 1-25.
- 남길임(2012), “어휘의 공기 경향성과 의미적 운율”, *한글* 298, 한글학회, 135-164.
- 남길임(2014), “언어 사용의 경향성과 유의어의 기술”, *한국어 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59-82.
- 남길임(2019), “한국어 사전학의 현황과 과제 -말뭉치 혁명과 사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7, 언어정보연구원, 61-86.
- 남길임·최준·이수진(2017),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72-106.
- 남길임·이수진·최준(2018), “웹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신어의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55-84.
- 조지 레이코프(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미국의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유나영 옮김, 삼인.
- 조지 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2007), *프레임 전쟁: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전략*, 나익주 옮김, 창비.
- Baker, P.(2011), “Times may change, but we will always have money: Diachronic variation in recent british english”,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39(1), 65-88.
- Bastuji, J.(1974), “Aspects de la néologie sémantique”. *Langages* (36), 6-19.
- Boussidan, A.(2013), *Dynamics of semantic change: Detecting, analyzing and modeling semantic change in corpus in short diachrony*, Doctoral dissertation, Lyon 2.
- Brezina, V.(2018), *Statistics in corpus linguistics: A practical gu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Kean, E.(2015), *All the Words: Erin McKean at the 2015 Media Impact Forum*, <https://www.youtube.com/watch?v=DAOXGtpbVZI>

- Firth, J. R.(1957),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 Gitlin, T.(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Guilbert, L.(1975), *La créativité lexicale*, Paris: Larousse.
- Hamilton, W. L., Leskovec, J., & Jurafsky, D.(2016), *Diachronic word embeddings reveal statistical laws of semantic change*, arXiv preprint arXiv:1605.09096.
- Hsieh(2015), “The Secret of Long-Living Words: Predicting the Lexical Age of Neologism with Big Data”, In *Proceedings of the 9th Asialex International Congress*, Hong Kong.
- Hunston, S., & Francis, G.(2000), *Pattern grammar: A corpus-driven approach to the lexical grammar of English* (4), John Benjamins Publishing.
- Kerremans, D., Stegmayr, S., & Schmid, H.(2012), “The NeoCrawler: Identifying and Retrieving Neologisms from the Internet and Monitoring Ongoing Change”, In *Current methods in historical semantics*, Editors: Kathryn Allan, Justyna Robinson, 59-96.
- Kilgariff, A., Herman, O., Bušta, J., Kovar, V., Baisa, V., and Jakubíček, M.(2015), “DIACRAN: a framework for diachronic analysis”, *Proceedings of the eLex 2015 conference*, Herstmonceux Castle, UK.
- Lakoff, G.(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Berkeley: Chelsea Green.
- Louw, B.(1993), “Irony in the text or insincerity in the writer? the diagnostic potential of semantic prosodies”, in M. Baker, G. Francis and E.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157-176.
- Newman, J.(2012), *Google Talks Up Big search Changes*. Time, March 15.<http://techland.time.com/2012/03/15/google-talks-up-big-search-change/s/>
- Renouf, A.(1993), “Making sense of text: Automated approaches to meaning extraction”, In *Proceedings of 17th International Online Information Meeting*. 77-86.
- Renouf, A.(2002), “The time dimension in modern English corpus linguistics”, In *Teaching and Learning by Doing Corpus Analysis*, Brill Rodopi. 27-41.
- Renouf, A.(2009), “Corpus linguistics beyond Google: The WebCorp Linguist's Search Engine”, In R. Siemens & G. Shawver (Eds.), *Digital Studies/ Le champ numérique 1(1)*, the Society for Digital Humanities/ Société pour

l'étude des médias interactifs (SDH/SEMI).

Renouf, A.(2013), “A finer definition of neology in English: The life-cycle of a word”, In Hasselgård et al. (Eds.), *Corpus perspectives on patterns of lexi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76-207.

Sinclair, J.(1996), “The search for units of meaning”. *Textus* IX. 75-106.

Stubbs, M.(2009), “The Search for Units of Meaning; Sinclair on Empirical Semantics”, *Applied Linguistics* 30(1). 115-137.

남길임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1566
전화 번호 : 053-950-5111
전자 우편 : nki@knu.ac.kr

이수진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
41566
전화 번호 : 053-950-2414
전자 우편 : sjmano27@naver.com

강범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17035
전화 번호 : 031-330-4286
전자 우편 : kangbeomil@gmail.com

원고 접수일 : 2019. 08. 20.

원고 수정일 : 2019. 09. 10.

게재 확정일 : 2019. 09. 18.